

# ‘광역 시·도의원 정수 조정’ 지역 정치권 반발

### 광주 동구 1명·전남 함평 등 6명 감축 가능성

###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기준 불합리 주장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의 광역시의원 1명을 줄이고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흥지역 전남도의원 1명씩 총 6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이병훈 지역위원장과 광주시의회 임택·조세철 의원은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동구의 시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정가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편차를 4대 1로 정해 상한선 12만3580명, 하한선 3만896명으로 정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해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분할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통합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 동구 시의원 1명과 전남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흥군의 도의원 1명씩이 줄어들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일부 지역은 인구 상한선을 넘지만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없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비례대표 3명과 5개 구에서 선출한 19명 등 총 22명의 시의원으로 이뤄졌다.

지역구 시의원 19명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서 2명을 뽑고, 남구 3명·서구 4명·광산구 4명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에서 6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동구 지역 시의원을 1명 줄여 대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

는 광산구 시의원을 1명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의원과 정치인들은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병훈 지역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14만~20만명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동구는 9만6000명의 지역민이 있는데 시의원 1명만 뽑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당리당락과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해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민형배 광주구청장 오늘 ‘광주의 권력’ 출판기념회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8일 오후 7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저서 ‘광주의 권력’(도서출판 دنب이 P&B) 출판 기념회를 연다.

민 구청장은 “1987년 이후 한 세대가 경과하고 나서야 찾아 온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기회에서 광주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지역과 나라에 좋을지를 정리했다”고 이번 책을 소개했다.

이 책의 부제는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 정원으로’이다. ‘민주주의 정원’(The Gardens of Democracy)은 에릭 리우 등이 쓴 책의 제목으로 저서 ‘광주의 권력’의 논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민 구청장은 책 프롤로그에서 “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지’를 맡겨를 삼지 않고 ‘잘 사는 도시’로만 접근하면 개발시대 성장 전략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정의로움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풍요로움을 성취하는 도시가 ‘민주주의 정



원’ 광주다”라고 설명한다.

‘광주의 권력’은 제1부 ‘시민과 시민권’, 제2부 ‘광주, 그라나’, 제3부 ‘자치의 힘’, 제4부 ‘정치

그리고’ 등 총4부 16장으로 이뤄졌다. 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민 구청장의 신간 출판을 축하한다.

‘광주의 권력’은 2012년 ‘자치가 진보다’, 2015년 ‘내일의 권력’에 이어 민 구청장이 재임 중 세 번째 집필한 책이다.

민 구청장은 ‘내일의 권력’ 출간 당시 “2년 뒤에는 ‘광주의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빛가람산타원정대 출범식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는 ‘2017 빛가람산타원정대 출범식’이 7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본부와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어린이 등 참석자들이 희망풍선 날리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국립 석유화학안전체험관 여수산단에 들어선다

### 2020년까지 국비 238억 들여 건립 ... 근로자 안심ilter 조성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석유화학 근로자들의 안전체감과 교육을 위한 국립 석유화학안전체험교육관이 여수에 들어선다.

전남도는 석유화학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안심ilter 조성을 위한 국립 석유화학안전체험관을 여수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석유화학안전체험교육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여수국가산단 6612㎡ 부지에 연면적 5850㎡의 규모이며, 산업근로자 안전체험교육장·가상 안전체험관·부대시설 등이 마련된다.

2019년부터 부지 매입과 설계에 들어가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비 238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최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지역 기간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중심지 여수에 교육관을 유치하려고 정부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1967년 조성된 여수산단은 시설 노후화

로 잦은 폭발·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3만여명 근로자가 일하는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10년간 321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33명 등 3449명의 인명피해와 114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하지만, 안전교육시설이 없어 석유화학 특성에 맞는 안전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관 건립이 요구됐다.

한동희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시설이 완공되면 전남 동부권, 광주와 전북은 물론 경남 일대 산업 안전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의무구매 대상 확대

### 지방 공사·공기업으로 늘려

### 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지역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의무구매 대상이 지방 공사·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는 적용 대상에 기존 전남도·도의회, 산하 출자·출연기업에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이 추가됐다.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일도 매년

3월 말일에서 매년 2월 말로 변경하고 구매실적도 년 1회 공고하던 것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2회를 전남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 우선구매 촉진 비율을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확대했다.

강성휘 의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형성,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유원지 기준 완화·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건의

### 전남도 규제개혁위

전남도가 유원지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전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제3회 전남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한 7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 3건은 시군 의견을 수용해 중앙부

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4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 의결된 과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 유원지에 대한 정의를 현행 ‘주민들의 편의증진’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44세에서 4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사업지침 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이 현실화도 건의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 호남 및 제주권

#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 맞춤형 취업지원컨설팅 프로그램

함께 취업을 준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1:1 상담으로 맞춤형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1:1**

**대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으로 이공계열 기업 취업 희망자

**프로그램 운영 내용 (100% 정부지원)**

-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 취업 희망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과학지도사, 식품생물산업 특화프로그램 등 운영
- 4차 산업 혁명 대비 미래 새로운 과학기술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WISET 호남제주권역사업** Tel. 062) 530-0497-8

## 2018학년도 신·편입생 및 외국인학생 모집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사자격 미소지자 지원 가능)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302명(야간제, 계절제)
2. 전형구분 - 야간제: 일반전형, 특별전형(시·도교육감 추천, 외국인 학생, 편입학)  
- 계절제: 일반전형, 특별전형(외국인 학생, 편입학)
3. 모집전공 (20개 전공, 계절제는 일부 전공 제외)

초등도덕교육	초등국어교육	초등사회과교육	초등수학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체육교육	초등음악교육	초등미술교육
생활융합교육	초등영어교육	컴퓨터교육	교육과정과수업
교육행정·정책	교육상담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기획	아동문학교육	발명영어·로봇교육	진로진학컨설팅교육
4.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교육상담 전공은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3년 이상 교육경력).
5. 원서접수: 2017.12.5.(화) ~ 12.14.(목)  
※ 인터넷 접수[http://www.uwayapply.com(유웨이어플라이)]
6. 장 학 금: 입학·수업료장학금, 공로장학금(원우회), 주임교수추천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등
7. 특 전
  - ▶ 교육상담 전공 졸업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초등 2급 이상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경력 3년 이상자)
  - ▶ 졸업시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초등 2급 정교사 중 교육경력 1년 이상자)
  - ▶ 졸업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유치원 2급 정교사 중 교육경력 1년 이상자)
  - ※ 위 특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교사 또는 기타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8. 자세한 사항: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모집요강) 참고  
※ 문의: 062)520-4082~3, http://www.gnue.ac.kr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